

시향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전자신문 e-paper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5~10년간은 종이신문과 e-paper가 병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e-paper가 유료화 되어야 신문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신문협회의 세미나에서 수년간 e-paper 유료화가 논의되었는데 최근에는 e-paper 유료화는 신문사들의 당위라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e-paper의 유료화를 성공시켰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성공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4백개 일간지가 e-paper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 대표님은 1면 톱기사로 정정보도를 하는 등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신문은 대표적인 신뢰상품입니다. 신뢰를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보가 나오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해야합니다. 1면에서 오보가 나오면 가능하면 1면에 정정보도를 내야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또한 언론자유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자유와 오보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쪽은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오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이때 건전한 상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양측의 주장을 조정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법원으로 가기 전 가능한 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은 높아져야 하고 또 기구와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인삼 수출업, 기술학원 운영, 노동문제전문가, 내일신문 사장, YTN사장, 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한계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꼽아본다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간지 창간 첫해에 모두가 적자난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곧 망할 거라고 했지만, 흑자가 났던 일과 YTN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3개월 만에 흑자를 이뤘던 일에서 가장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승민

위원동정

COMMISSIONERS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 심포지엄 진행 말아



유익선 위원(서울제2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6월 1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 관련 세 학회가 공동 개최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 두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방송통신 세 학회는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이다.

'1975' 발간에 공저자로 참여



김세은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975년 강제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이아기를 다룬 '1975, 출간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5월에 발간된 이 책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디어오늘'에 연재된 '동아투위 유신시절을 말한다'를 재편집하여 엮어낸 책이다. 김세은 위원은 '동아투위 위원들의 생애를 연구하다' 제하의 장에서 동아투위 당사자들과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해 저술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 위촉



한은경 위원(서울제2중재부, 성균관대 언론정보 대학원장)은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역방송과 중소 라디오방송사에 대한 지원 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배 조정,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남의병 학술대회 주제 발표



남부회 위원(경남중재부,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은 5월 30일 의령군민회관에서 열린 제3회 의병의 날 기념 영남의병학술대회에서 '의령지역 의병과 영남'을 주제로 연구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에서 남 위원은 홍의장군 객재우의 의병 봉기가 사실상 봉괴한 조선왕조를 재정비해 나라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령지역 의병의 주요 전적과 활약상을 고찰하고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3가지 측면에서 정의했다.

COMMISSIONERS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막 올라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은 6월 15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댐프) 전야제 행사 'K-뮤지컬 콘서트'에서 댐프 개막을 알렸다.

제7회째를 맞는 댐프는 6월 17일 개막작 '선피쉬'(Sunfish)를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24개 작품이 대구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장 위원은 '미라클 뮤지컬, 미라클 댐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댐프가 지역 행사에서 벗어나 한국 공연산업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은 국내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해외 진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며 미래 뮤지컬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 발굴을 위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뮤지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뮤지컬 콘서트'에는 대구중재부 김정숙 위원과 윤덕우 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위원회 소식

NEWS

통일교육원 미래지도자 과정 수강생 교육



위원회는 6월 12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고위 임원 및 현역 군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원 미래지도자 과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언론환경

변화와 Social Media 커뮤니케이션 전략', '언론대응전략 및 언론피해구제', '전략적 이슈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위원회와 통일교육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교육사업 협력 차원에서 실시됐다.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과 MOU 체결



위원회는 6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김정탁)과 갈등조정을 위한 수사학 개발과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위원회와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간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학술 협력 등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집체연수 실시



위원회는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춘천시에 소재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사무처 전체 직원이 참가하는 직원 집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김기옥 모커리 한방병원 원장의 건강 특강과 춘천소방서 이원표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법 실습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졌으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검봉산 국민의 숲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사무처 인사

- 직원해외실무연수: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장성원(2013. 7. 2자)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 파견: 심리본부 조사팀장 강현석(2013. 7. 8.자) [경찰대 치안정책교육과정]